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신질서 시대에 한국이 나아갈 방향은?

[발제자] 김영수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일 시] 2021년 9월 2일(목) 오전 9시 30분

[장 소] YouTube 한선TV 채널



☒ 문자 후원

#7079-4545

제375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요 약

■ 지난 100년 동안 한국은 기적을 이뤘다. 19세기 한국은 가난했다. 한국은 왜 그렇게 가난했을까.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정치질서의 기원'에서 “가난한 나라는 자원이 없어 가난한 게 아니라, 효과적인 정치 제도가 없어 가난하다.”라고 통찰했다. 이후 한국은 새 나라를 꿈꾸고 헌신한 사람들 덕분에 가난에서 벗어났다. 100년 만에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만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중요한 갈림길에 서있다.

■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100년에 걸쳐 만든 나라가 원래 상태인 다시 가난한 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생겼다. 현 정부는 성공적인 근현대사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위기,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한 국가 채무, 무너지는 법치 등으로 국가 정체성에 위기가 왔다. 쿠데타나 의회해산과 같은 명백히 눈에 보이는 독재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은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상식이 통하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자유가 회복되고 공정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

◆ 대한민국 만들기

- ◆ 현재 대한민국은 중요한 갈림길에 서있다. 지난 100년 동안 조선을 새로운 나라로 바꾸어왔다. 1911년 동아시아를 여행한 영국의 페이비언사회주의자 비어트리스 웨브는 한국인을 “호모사피엔스가 진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비천한 척추동물”로 멸시했다. 한국이 왜 그렇게 엉망으로 가난한 나라가 되었을까. “가난한 나라는 자원이 없어 가난한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정치 제도가 없어 가난하다.”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정치 질서의 기원’에서 밝힌 통찰이다. 19세기 말, 한국을 방문했던 비숍도 프랜시스 후쿠야마와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에서 “한국을 처음 봤을 때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연해주로 이주한 한국인들을 보고 한국은 바뀔 수 있고 당시 조선의 문제는 나쁜 정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 ◆ 이는 당시 한국의 선각자들도 갖고 있는 생각이었다. 개화파 인물 중 한 명인 유길준은 1883년 미국에 보빙사로 다녀온 후 ‘서유견문’이라는 책을 썼다. ‘서유견문’은 여행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책의 목차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내용은 국가 구상을 담고 있다. 조선 초 정도전의 ‘조선경국전’에 해당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다. 비슷한 무렵 이승만도 같은 생각을 했다. 영어를 배우러 배재학당에 들어간 이승만은 정치적 자유의 개념에 대한 사상을 배우게 되었다. 그 이후 독립정신의 6대 강령을 썼다. 독립정신에는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든 중요한 원칙이 들어있다. ‘1. 우리는 세계에 대해 개방해야 한다. 2. 새로운 문물을 자신과 집안과 나라를 보전하는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3. 외교를 잘해야 한다. 4. 나라의 주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5. 도덕적 의무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6. 자유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가 그 내용이다. 6대 원칙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든 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 ◆ 자유민주국가를 만들고 국가를 운영했지만 5·16이 일어났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자유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경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자각했다. 그와 같은

구상을 발표한 ‘우리 민족의 나갈 길’이라는 책에서 ‘경제개발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는 한국뿐만 아니라 아세아에 있어서 진정한 민주주의의 성패와 장래를 결정하게 될 유일한 관건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

- ◆ 정치가들뿐만 아니라 경제인들도 경제 개발을 중요시 여겼다. 삼성을 세운 이병철이 대표적이다. 이병철이 1963년 한국일보에 ‘우리가 잘 사는 길’이라는 글에서 중요한 원칙들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을 육성시켜야 한다. 두 번째는 외자를 도입해 수출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경제를 만든 중요한 원칙이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되기까지 큰 아픔들도 있었다. 노동자들이 많은 고생을 했다. 많은 학생들의 희생도 있었다. 산업화 과정을 거쳐서 1987년에 최종적으로 민주화에 성공했다. 결국 대한민국을 100년 만에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만든 것이다. 이는 인류사의 기적이라고 볼 수 있다.

◆ 대한민국의 위기

- ◆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100년에 걸쳐 만든 나라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생겼다. 국가 정체성에 위기가 왔다. 문재인 정부는 성공적인 근현대사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 이번 8.15 연설, 노동당 윤이상 음악가를 추모하는 등의 행보도 보였다.
- ◆ 안보가 위기다. 군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있다. 김원봉은 훌륭한 독립운동가이나 공산주의자다. 6·25 때 인민군이 되어 쳐들어왔던 사람이다. 그런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로 발표했다. 또한 지난 70여 년 간 안보를 책임진 한미동맹을 무너뜨리고 있다. 한반도 평화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핵에 대해서도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은 쿼드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며 한국도 쿼드의 일원이 되길 바라고 있으나 한국은 쿼드에 가입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 ◆ 경제적으로 민생에 큰 위기가 닥치고 있다. 현 정부가 진행한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가장 많은 피해를 입혔고 부동산 문제의 중요한 정책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집 투기에 나섰다. 내년 국가 채무가 1,000조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전재정의 마지노선으로 삼던 40%의 채무가 무너지고 이제는 50%에 이르렀다.
- ◆ 법치주의도 예외는 아니다. 검찰의 독립적인 수사권 박탈, 법원의 사법정의 붕괴 또한 문제이다. 현 정부는 헌법의 외피를 두르고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 결과적으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부딪혔다. 민주주의는 어려운 제도이다. 한번 세운다고 해서 지속되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 대대적인 선거부정이 일어난 김경수 전만 보아도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 ◆ 국회에선 여당의 단독처리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언론 중재법이 발의된 상태이다. 대한민국이 점점 나치즘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쿠데타라던가 의회해산 같은 명백히 눈에 보이는 독재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 한국이 나아갈 방향

- ◆ 정권교체가 과제이다. 상식이 통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공정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 자유가 회복되어야 한다. 상식과 공정, 자유를 회복하여 청년문제, 일자리 문제, 미래 문제에 대한 대안들을 새로 만들어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은 선진화이다. 훌륭하고 안전한 세계 일류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이 자아를 실현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열정적이고 도전하는, 좌절하지 않는 강인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인간적인 나라. 창조적인 나라. 글로벌한 나라이다. 그럼으로써 우리 국민이 행복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